



<그림 22> 월송정과 월송

제8절 월송2리(月松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울창한 송림(松林)과 월송정이 있고, 남쪽은 월송1리와 경계를 하고 있으며, 북쪽은 월송3리 화구(花邱)와 이웃하고 멀리 군무봉(軍舞峰)이 있으며 황보천(黃堡川)이 동해로 흐르고 있다. 서쪽은 마을 뒷산이며, 그 아래에 있는 동향(東向)의 마을이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신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944년에 월송리가 1리·2리·3리로 분구(分區)됨에 따라 월송2리가 되었다. 1980년 12월 1일[대통령령 제10050호]에 평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평해읍 월송2리로 되었다.

3. 가구 분포

총 51세대가 거주하며 평해 손씨(平海孫氏)와 평해 황씨(平海黃氏), 안동 권씨(安東權氏)가 대종을 이루며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제(洞祭)

매년 정월 15일에 동제(洞祭)를 올리고 있다.

2) 월송포(越松浦)

월송정(越松亭) 앞바다를 말하며, 현재의 월송정주차장 부근에 만호(萬戶)와 수군(水軍)이 주둔하면서 왜적을 막았다고 한다.

5. 전설

1) 금반정(金盤井)

금반석(金盤石) 같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2) 솔밭, 솔머리, 송두(松頭)

월송정의 울창한 솔밭 입구에 있다 하여 불린 이름이라고도 하며, 옛날 만호(萬戶)란 벼슬을 한 사람이 이곳을 개척할 때 붙인 지명으로 전한다.

3) 정자리(亭子里)

월송마을 7번국도 동쪽에 있는 월송송림(月松松林) 남쪽 언덕 밑에 있는 부락으로 정자[월송정]가 있다 하여 정자리(亭子里)라 부른다. 옛날 정자리 부근은 거의 솔밭이고, 바닷물과 남대천물이 밀려 들어온 곳이었으나, 1891년의 대홍수(大洪水)로 솔밭이 유실(流失)되고 그 후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과 같은 월송들이 생겼다 한다.

제9절 월송3리(月松三里)

1. 마을의 자연환경

서북쪽은 황보(黃堡)들이 있고, 오곡계곡(梧谷溪谷)의 냇물이 황보천(黃堡川)과 합류하여 군무봉(軍舞峰) 옆을 지나 동해로 흐르고 있다. 동쪽은 월송송림과 월송정, 월송평야가 있으며, 월송2리와 접하였고, 일출봉(日出峰) 지맥(支脈)을 뒤로한 동향의 마을이다. 마을회관